

## 2006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선정계획 공고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민교양지수 제고 및 출판산업진흥을 위해 '2006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1. 대상 도서 :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 기간에 국내에서 발행된 초판 교양도서(전자출판물 포함)
2. 선정분야 :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 10개 분야  
(※ 전집류, 아동, 청소년 분야는 십진분류법에 해당하는 분야에 신청)
3. 신청 및 접수 : 2006. 9. 11 ~ 9. 29(토요일 신청 및 접수 가능)
4.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및 신청도서 2부, 국립중앙도서관 제출(납본)필증
5. 신청서 입력 : 출판유통진흥원(<http://www.booktrade.or.kr/>)에 접속, 입력 후 출력하여 접수처에 제출
6. 접수처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우 157-857, 서울 강서구 방화동 3동 827 / 국립국어원빌딩 4층)
7. 신청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송 (단, 우송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8. 선정방법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9. 선정결과 발표 : 2006년 10월말 예정, 중앙일간지, 문화관광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유통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발표
10. 선정도서 지원 : 선정도서의 일정 부수를 구입하여 지원함, 선정된 도서에 '2006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

## 출협, 오는 4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참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박맹호)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의 지원을 받아, 오는 10월 4일(수)부터 8일(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제58회 프랑크푸르트도서전' (Frankfurt Book Fair)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수준 높은 한국문화 홍보를 통한 도서 저작권 수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한국관에는 국내 45개 출판사(위탁전시 포함)가 문학, 인문서, 아동, 한국어 교육서 등 창작성과 실용성 높은 도서 1,300 여종을 전시한다. 또한 우수한 한국 출판물의 저작권 및 도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한 외국어초록집(Books from Korea 2006)과 여기에 게재된 도서도 함께 전시함으로써, 전 세계 출판인을 상대로 한 저작권 수출 상담에 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은 1961년부터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매년 참가해왔으며, 1998년 제50회 프랑크푸르트도서전부터 국가관을 설치해왔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한국관 규모(약 110평)가 상대적으로 적어졌으나,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 이후 그 성공 효과를 유지, 확대시키기 위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한국관을 구성하고 한국 출판물 홍보에 주력할 것이다. 한층 효과적인 전시 및 상담을 위해, 예년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공간을 배정하였으며, 한국관 안내 리플렛과 전시도서의 초록집도 배치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2007 서울국제도서전, 2008 국제출판협회(IPA) 서울 총회, 2009 볼로냐 아동도서전 주빈국 등 한국 출판계에서 예정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도 활발히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2008 국제출판협회(IPA) 서울 총회 개최와 관련, 한국관 내에 이 행사의 홍보관을 따로 마련하고 적극적인 PR을 계획하고 있다.

## 3회 한국출판문화대상 신청 안내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국출판경영자협회, 문화일보와 함께 저자 및 출판사의 양서출판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한국출판문화대상이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한다.

1. 대상도서 :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발행된 출판물 중 납본을 필한 도서 (발행일은 완간일을 기준으로 함)
2. 접수기간 : 2006년 9월 11일(월) ~ 9월 29일(금) 18:00까지(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접수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사업부 (110-190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05-2)
4. 신청서류 : 일반도서 신청서 2부, 대형기획물 신청서 전질 1세트 (신청된 도서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양식) 및 출품도서에 대한 간단한 개요서 각 1부.
5. 심사 및 발표 : 10월 하순 경 발표 예정

## 제1회 한·중 저작권 포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 이하 저심위)는 7일 오전 9시 30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판권보호중심과 공동으로 제1회 한중 저작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저심위와 중국판권보호중심이 지난 4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첫 번째 행사로, 한국과 중국의 음악, 출판, 영화 분야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양국의 교류와 협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중 저작권산업과 신탁관리제도'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왕즈창(王自強) 국가판권국판권사 사장과 박영대 주중 한국 문화원장, 최판진 저심위 사무국장 및 양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표들과 저작권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음악 분야의 경우 한국에서는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가, 중국에서는 음상집체관리협회가 참석

하였으며, 출판 분야는 한국의 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중국의 문자작품저작권협회가 함께했다. 영화분야의 경우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중국촬영가협회 저작권공작위원회, 중국작가협회 작가권익보호위원회 등이 참석하였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활발한 중국진출과 함께 저작권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중 저작권대표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향후 양국 저작권무역 활성화와 교류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아직 저작권신탁관리가 활발하지 못한 중국이 한국의 저작권신탁관리를 이해하고 협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중국판권보호중심은 국가판권국 산하 기구로 저작권등록, 감정, 법률서비스, 반해적판활동, 홍보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저작권 관리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문화일보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6. 시상 : 11월 1일(수), 문화일보 문화홀 (예정)
7.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8. 협찬 : (주)금성출판사, (주)두산동아

더 클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볼로냐아동도서전을 통해 반환

5. 문의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사업부 박은정 Tel : 02-735-2702 / Email : ejpark@kpa21.or.kr

## 볼로냐아동도서전 Illustrators Exhibition 2007 출품안내

1. 출품자격 - 1990. 12. 31 이전에 출생한 세계 각국의 일러스트레이터 및 일러스트레이터 단체  
- 2005. 1. 10 이후 출간되었거나 아직 미출간된 작품 5점  
- Fiction 혹은 Non-Fiction 분야 지정
2. 출품방법 : 2006. 10. 31까지 아래의 주소로 직접 송부  
Illustrators Exhibition BolognaFiere Piazza Costituzione 6 40128 Bologna - Italy
3. 첨부서류: 신청서(Entry form) (온라인상으로 입력 후 출력) / 신청인 사진 1매 / 일러스트레이션 5점 (뒷면에 일련번호(1~5)에 따라 라벨 부착) / 운송시 Form A나 B 작성하여 운송 박스 표면에 부착
4. 출품 작품의 최대 크기 : Fiction 32 x 42 cm (or 42 x 32 cm) / Non-Fiction 50 x 70 cm (or 70 x 50 cm) / 이보다

## 제24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선정결과 공고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출판문화 향상을 위해 실시한 제24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 선정결과 - 저술 / 김효철 외 / 《한국의 배》/ 지성사  
- 번역 / 김명남 / 《세계를 삼킨 숫자 이야기》/ (주)생각의나무  
- 출판 / 김갑웅 / 《유비쿼터스 시대의 보건 의료》/ 진한엠앤비  
- 특별상 / 고영수 / 《재미있는 바다 생물 이야기》/ 추수밭

정리\_송보경·이주연 기자